

시간제 근로 및 성별에 따른 개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이용하여—*

김재원** · 임 업***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the Satisfaction of Personal Life - Using Seoul Survey -*

Jae Won Kim**, Up Lim***

국문요약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 삶의 만족도, 성별, 교차효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Abstract : Korea's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OECD. Such long-term work has been a factor that reduces the quality of life by discouraging workers' productivity and interrupting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prompting the government to encourage flexible work systems, such as increasing part-time jobs, but a lack of quality part-time jobs. Part-time work enables flexible labor for workers, but at the same time, workers will involuntarily opt for part-time work as they have poor working conditions and negative social views. In this respect, the effect of the working type on an individual's life is expected to be different. In addition, for women, gender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지역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주저자, jaewonkim@yonsei.ac.kr)

*** 본 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uplim@yonsei.ac.kr)

gaps exist in the labor market and the impact of part-time work on life satisfaction is expected to differ from men in terms of working and family alike. Using the data from the 2017 “Seoul Survey Urban Policy Indicator Surve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cross-effect of working type and sex on satisfaction. The analysis of the study showed that when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life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order of full-time female, full-time male, part-time female, and part-time male. In addition, further analysis shows that the part-time female workers have the highest probability of choosing low life satisfaction, while the probability of choosing high life satisfaction is the lowest, and full-time male workers have the lowest probability of choosing low life satisfaction, while the highest probability of choosing high life satisfaction is the highest.

Key Words : Part-time work, Full-time work, Life satisfaction, Gender, Cross-effect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순위는 OECD 38개국 중 29위를 기록하였는데, 장시간 근로자 비율, 일과 생활의 균형, 업무 스트레스 등의 부문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OECD, 2017).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조건이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장시간 근로는 개인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는 사회적으로는 전일제 근로의 기반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전일제에 독점되어 타 직종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김강식, 2014).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part-time job)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의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김현경 외, 2015).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 일자의 확산에 정책적 관심을 두는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

해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장시간 노동과 가정생활의 희생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기업의 문화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1990년대 5% 미만에서 2013년도에는 11.1%로 성장하였으며(김현경 외, 2015), 2013년도 기준 유연근로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시간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이처럼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를 통해 청년들은 학업과 일, 기혼자들은 가정생활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며, 노년층은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득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시간제 일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decent) 시간제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의 일종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사내 교육 및 연수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도 짧기 때문에 고용 상태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들은 값싸고 대체가능한 근로자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대체로 부정적이다. 열악한 고용환경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열등감, 불평등,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박은희·김혜숙, 2017).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 제고와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취지와는 달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남성에게 주로 배분되어 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준협, 2013).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으면서 육아와 가정,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탓에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비자발적(involuntary) 선택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분야는 판매서비스나 영업보조 등 과거 경력과는 단절되어 있는 저임금-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OECD, 2018). 국내의 다수의 연구들은 시간제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라는 성별 분리(gender segregation) 현상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Sparremooib, 2014; 이주희, 2011). 이처럼 시간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주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 연구의 목적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다루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고용 유연화 및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 등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여부를 핵심 설명변수로 하여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시간제 근로의 교차효과(cross effect)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성별에 따라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배경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는 주어진 일정한 시간을 일하는 근로 형태로서 시간에 따른 고용 상태를 나타낸다. OECD에서는 주된 업무에서의 평소 및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근로를 시간제 근로라고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근로를 시간제 근로로 규정하며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와 반대되는 개념인 전일제 근로(full-time work)는 주당 36시간 이상의 근로를 의미한다.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 근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시간 때문에 단시간 근로(short-time work)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998년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급증하였지만,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7년도를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시간제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4시간으로, 40.7시간인 전일제 및 정규직 일자리의 절반 수준이다(통계청, 2017). 일하는 시간이 짧음에 따라 임금 수준 또한 정규직에 비해 낮은데, 정규직 근로자가 월평균 284만 3천 원을 벌 때 시간제 근로자는 8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간제 일자리에 저임금 직종이 집중해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대비 임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에도 전일제 및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데, 이러한 임금 격차(wage differential)는 결과적으로 직업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현상을 야기하며, 시간제 근로로 장기간 일할수록 임금 불이익이 커지게 되고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이주희, 2011).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에서도 매우 낮으며, 전일제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승진 가능성과 경력개발의 차원에서도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정규직은 물론, 시간제 일자리가 속해있는 비정규직과의 비교에서도 비정규직의 평균값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2년도 기준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불과 3.3%(6만 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협,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좋은 일자리가 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스스로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내리는 인지적 판단이자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Palmore, 1977; 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로서, 직업, 가족, 공동체,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들의 만족도가 수반되어 결정된다(Campbell, 1976). 해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주로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또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정의되며,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및 보편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선행 연구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소득, 건강상태, 주거유형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Gash, 2010). 또한 일에 대한 만족감, 행복, 자신에 대한 평가 등의 주관적 요소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sh, 2010; Rodríguez-Pose, Andrés, and Viola Von Berlepsch, 2014).

본 연구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시간제 근로 여부에 주목한다. 개인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재정적 혜택과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얻거나 무력감 또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혜택을 받을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는데(Rife, 2001), 이는 시간제 근로를 통해 일자리의 기회나 노동의 유연성을 부여받고 자존감 형성 및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이 시간제 근로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임시직, 낮은 직업적 위세로 인한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보다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어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제 근로의 부정적 측면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involuntary part-time work)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비자발적 근로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통계청(2017)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근로자 중 49.7%가 비자발적인 근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절반에 가까운 시간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시간제 근로는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비자발적으로 선택되는 근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춰 궁극적으로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시간제 근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성별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시간제 근로가 성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여성은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28.6%)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17). 시간제 근로자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 노인에게는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의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 선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성재민, 2014), 대부분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을 거치면서 경력단절

후 재취업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 선호에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Gash, 2010; 홍찬숙, 2011; 금재호, 2014).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는 남성의 것, 시간제는 여성의 것이라는 성별 편향적(gender-biased)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나 직업을 포기한 채 자녀를 돌봐야 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제로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Kenjoh, 2005).

성별과 삶의 만족도를 다뤘던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가정 및 직장 생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컨대,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 근로보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직장 과 가정 모두에서 남성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가영희, 2006).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과 가정의 균형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탓에 근로와 가사 시간의 총합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김난주·권태희, 2009). 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들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Boye, 2009). 또한 전일제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한 여성의 경우, 전일제보다 시간제가 열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임금 보상 수준이 낮음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Gash, 2010).

3.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 여부와 성별의 교차효과에 따라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

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료와 시간제/전일제 근로 형태를 포함한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를 구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42,688명 중에서 표본을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한정하고, 그 중 학생, 주부, 무직 등을 제외한 총 21,670명의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LS)이다.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1점 리커트(Likert) 척도(0점~10점)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0점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 상태’이며 5점은 ‘보통’, 10점은 ‘매우 만족한 상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성별과 시간제 근로 여부의 교차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 설명변수로 성별과 시간제 여부의 교차효과항(cross-effect term)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전일제 남성(M_Full)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시간제 남성(M_Part), 시간제 여성(Fe_Part), 전일제 여성(Fe_Full) 각각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사회연결망 수준, 주관적 계층지위, 주택점유형태 등을 포함하였다. 삶의 만족도가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만 15세 이상 30대 미만, 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그리고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사별, 별거, 이혼, 미혼)를 0으로 코딩하

였고,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경우(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소득 수준은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내 “귀하의 1년 동안(2016.9.1~2017.8.31) 세금납부(공제) 전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범주형 변수인 소득수준을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0만 원 미만과 900만 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최댓값인 50만 원과 최솟값인 900만 원, 그 외 응답은 구간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개인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각각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계층지

위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서울서베이 내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자신이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대하여 10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한다. 최하층으로 생각하는 경우 1점, 중간 계층으로 생각하는 경우 5점 혹은 6점, 그리고 최상층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10점으로 나타내어 구성하였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연결망 수준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모임 또는 단체 종류 개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 및 코딩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3) 분석 모형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시간제 근로 간의 교차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

<표 1>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코딩
종속변수	<i>LS</i>	11점 리커트 척도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 상태)~5점(보통)~10점(매우 만족한 상태)
설명변수	<i>M_Part</i>	남성 시간제 근로자
	<i>Fe_Part</i>	여성 시간제 근로자
	<i>M_Full</i>	남성 전일제 근로자
	<i>Fe_Full</i>	여성 전일제 근로자
통제변수	<i>AGE_30</i>	15세 이상 30세 미만
	<i>AGE_40</i>	30세 이상 40세 미만
	<i>AGE_50</i>	40세 이상 50세 미만
	<i>AGE_64</i>	50세 이상 65세 미만
	<i>INCOME</i>	소득 수준
	<i>EDU_BELOW</i>	고등학교 졸업 미만
	<i>EDU_HIGH</i>	고등학교 졸업
	<i>EDU_COLLEGE</i>	대학교 졸업 이상
	<i>MARTAL</i>	결혼 여부
	<i>RENT</i>	주택점유형태
	<i>CLASS</i>	주관적 계층지위
	<i>SOCIAL</i>	사회연결망 수준

도이며, 핵심 설명변수는 남성 전일제 근로자를 준거 집단으로 하여 성별과 시간제/전일제 근로 형태의 상호작용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가 리커트형 종속변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로짓 함수(logit function)를 매개함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 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례오즈 모형(proportional odds model)은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모형으로, 그 식은 식 (1)과 같다 (McCullagh, 1980).

$$\text{Log}\left(\frac{\Pr(y \leq m|x)}{\Pr(y > m|x)}\right) = \tau_m - x\beta \quad (1 \leq m < M) \quad \text{식 (1)}$$

식 (1)에서 m 은 각 범주 값, x 는 독립변수, γ 는 차단 점(cut point), 그리고 β 는 로짓계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상수항이 추정되지 않는데, 이는 을 추정하기 위해 β_0 을 0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 표에서 로짓 계수와 오즈비(odds ratio)를 함께 제시하는데, 오즈비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설명변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사건)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설명변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사건)를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식 (2)와 같다.

$$\begin{aligned} LS = & \beta_0 + \beta_1 M_Part + \beta_2 Fe_Part + \beta_3 Fe_Full \\ & + \beta_4 AGE_30 + \beta_5 AGE_50 + \beta_6 AGE_64 \\ & + \beta_7 INCOME + \beta_8 EDU_BELOW \\ & + \beta_9 EDU_COLLEGE + \beta_{10} MARITAL \\ & + \beta_{11} RENT + \beta_{12} CLASS + \beta_{13} SOCIAL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식 (2)}$$

4.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7년 서울시 거주 근로자 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관찰된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표 2> 기술 통계량 (n=22,544)

변수	변수 설명	2017년 서울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LS	7.2677	1.5158	1	10
설명변수	M_Part	0.0138	0.1168	0	1
	Fe_Part	0.0426	0.2020	0	1
	M_Full	0.5879	0.4922	0	1
	Fe_Full	0.3556	0.4787	0	1
통제변수	AGE_30	0.1140	0.3178	0	1
	AGE_40	0.2668	0.4423	0	1
	AGE_50	0.2596	0.4385	0	1
	AGE_64	0.3595	0.4799	0	1
	INCOME	297.0092	132.851	50	900
	EDU_BELOW	0.0258	0.1586	0	1
	EDU_HIGH	0.3026	0.4594	0	1
	EDU_COLLEGE	0.6716	0.4696	0	1
	MARITAL	0.6875	0.4635	0	1
	RENT	0.5466	0.4978	0	1
	CLASS	6.3037	1.2508	1	10
	SOCIAL	1.5058	0.9584	0	8

7.27점, 표준편차는 1.52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시간제 근로 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본의 58.8%가 남성 전일제, 35.6%가 여성 전일제, 1.4%가 남성 시간제, 4.3%가 여성 시간제 근로자로, 전일제 근로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 표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4.17세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11.4%, 만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6.7%,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6.0%, 그리고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36.0%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지난 1년 동안의 세금납부 전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97.01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학력을 통해 나타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표본의 67.2%,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 표본의 30.3%,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전체 표본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 남녀는 전체 표본의 68.8%로 나타났으며, 자가 주택 거주자는 전체 표본의 54.7%로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

적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주관적 계층지위는 평균 6.3점으로, 중간 계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참여한 사회적 모임 또는 단체의 종류는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증분석 결과

〈표 3〉은 2017년 서울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시간제 근로의 교차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계수 추정치(β)는 로짓계수를 의미하며, $\exp(\beta)$ 는 오즈비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형에 사용한 모든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전일제 남성 대비 전일제 여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일제 남성 대비 시간제 여성과 시간제 남성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증분석 결과

변수	계수 추정치(β)	표준오차	$\exp(\beta)$	95% 신뢰구간
<i>M_Part</i> (시간제 남성)	-0.2310 **	0.1079	0.7937 **	(-0.4425, -0.0195)
<i>Fe_Part</i> (시간제 여성)	-0.1447 **	0.0660	0.8653 **	(-0.2741, -0.0154)
<i>Fe_Full</i> (전일제 여성)	0.0714 **	0.0284	1.0740 **	(0.0157, 0.1270)
<i>AGE_30</i>	0.1113 **	0.0456	1.1196 **	(0.0219, 0.2007)
<i>AGE_50</i>	-0.2817 ***	0.0349	0.7545 ***	(-0.3501, -0.2137)
<i>AGE_64</i>	-0.3327 ***	0.0367	0.7170 ***	(-0.4046, -0.2608)
<i>INCOME</i>	0.0010 ***	0.0001	1.0010 ***	(0.0008, 0.0012)
<i>EDU_BELOW</i>	-0.2728 ***	0.0812	0.7612 ***	(-0.4320, -0.1136)
<i>EDU_COLLEGE</i>	0.5547 *	0.0311	1.7414 *	(-0.0055, 0.1164)
<i>MARITAL</i>	0.1993 ***	0.0302	1.2205 ***	(0.1401, 0.2585)
<i>RENT</i>	0.1908 ***	0.0254	1.2102 ***	(0.1410, 0.2407)
<i>CLASS</i>	0.8003 ***	0.0116	2.2262 ***	(0.7776, 0.8231)
<i>SOCIAL</i>	0.1463 ***	0.0132	1.1575 ***	(0.1205, 0.1722)
LR χ^2	6585.94***			
Pseudo R^2	0.0871			

주 :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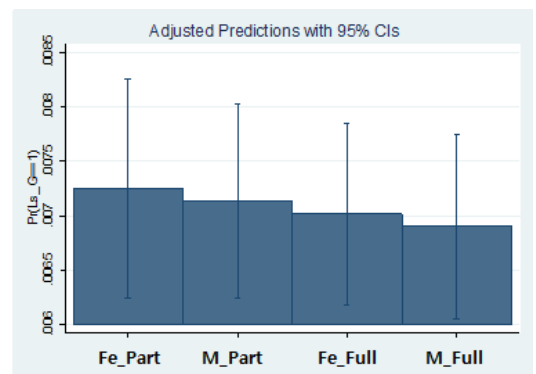
회귀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의 크기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남성을 기준으로 전일제 여성은 삶의 만족도가 7% 높게, 시간제 여성은 14% 낮게, 그리고 시간제 남성은 23% 낮게 추정되었다. 또한 회귀계수 오즈비 추정 결과, 시간제 남성이 0.7937, 시간제 여성이 0.8653, 전일제 여성이 1.074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제 여성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가능성이 약 7.4%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가능성은 시간제 여성이 약 13.47%, 시간제 남성이 약 20.63%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전일제, 가장 낮은 집단은 남성 시간제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시간제 근로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성별에 관계없이 시간제보다는 전일제 근로자에게서, 동일한 근로 형태라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전일제와 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근로 형태라면 여성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에 있어 성별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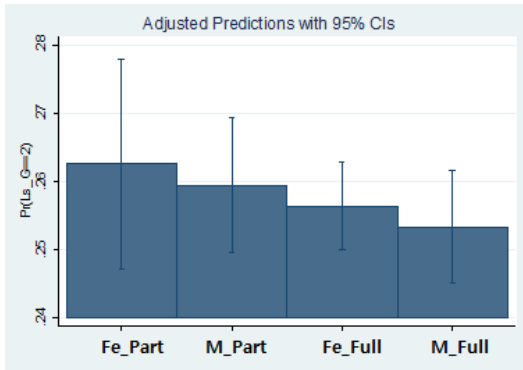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소득수준, 결혼 여부, 자가주택 거주 여부, 주관적 계층지위, 사회연결망 수준 등이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0세 이상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나이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과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대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미만과 대학교 졸업이 각각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음(-)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일 때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연결망의 양, 다시 말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모임과 단체가 많을수록 정신적 안정감에 크게 관여하여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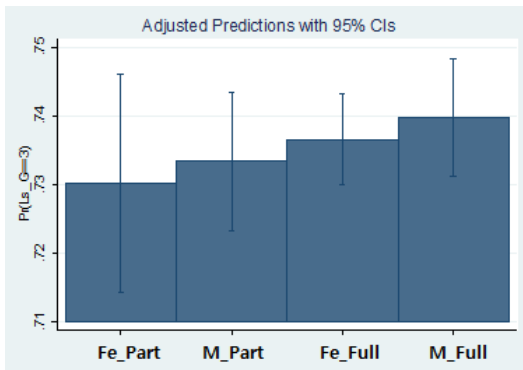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핵심 설명변수인 시간제 여성(*Fe_Part*), 시간제 남성(*M_Part*), 전일제 여성(*Fe-Full*), 전일제 남성(*M-Full*)에 대하여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을 가질 때 이들이 삶의 만족도 1~3점, 4~6점, 7~10점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느끼는 집단(0~3점),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표하는 집단(4~6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집단(7~10점)으로 구분하여 근무형태와 성별의 교차 효과에 따라 각 점수 구간을 선택할 확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정보(2017)」에서 실시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 문항에 의하면 가장 낮게 줄 수 있는 점수는 0점, 높게 줄 수 있는 점수는



(i) 삶의 만족도 1~3점을 선택한 경우



(ii) 삶의 만족도 4~6점을 선택한 경우



(iii) 삶의 만족도 7~10점을 선택한 경우

〈그림 1〉 성별-시간제 근로의 교차효과에 따른 삶의 만족도 선택 확률

10점이다. 하지만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0점을 선택한 표본은 없어 본 연구에서는 1~3점, 4~6점, 7~10점의 만족도 구간을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의 만족도에서 1~3점이 선택될 확률은 시간제 여성(0.00725), 시간제 남성(0.00713), 전일제 여성(0.00702), 전일제 남성(0.0069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에서 4~6점이 선택될 확률 또한 시간제 여성(0.26256), 시간제 남성(0.25947), 전일제 여성(0.25640), 전일제 남성(0.25335) 순으로 나타나 1~3점이 선택될 확률보다는 집단 간의 선택 확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에서 7~10점이 선택될 확률은 전일제 남성(0.73019), 전일제 여성(0.73340), 시간제 남성(0.73658), 시간제 여성(0.73974) 순으로 나타나 앞선 선택들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시간제 및 전일제로 대표되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의 (i) 삶의 만족도 1~3점이 선택될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선택 확률은 전일제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근로 형태라면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선택할 확률이 남성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 전일제 근로자에게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에서 (ii) 삶의 만족도 4~6점을 선택한 경우, 이전 구간(1~3점)과 유사하게 시간제가 전일제보다, 동일한 근로 형태라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1〉의 (iii) 삶의 만족도 7~10점을 선택한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7~10점)를 선택할 확률은 남성 전일제 근로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여성 전일제 근로자, 남성 시간제 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순서로 나타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보다, 동일한 근로 형태라면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2017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성별과 근로 형태의 교차효과는 삶의 만족도의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서울시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약 7.27점이다. 이를 앞선 분석에 적용하면 삶의 만족도 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1~6점)와 평균 이상인 경우(7~10점), 근로자들의 성별과 근로 형태의 교차효과는 삶의 만족도 선택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1~6점)의 삶의 만족도를 선택할 확률은 시간제 여성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았던 반면, 평균 이상(7~10점)의 점수를 선택할 확률은 전일제 남성 근로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균 이하의 구간에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가장 낮은 선

택 확률을 보였으며, 평균 이상 구간에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7점 이상의 만족도를 선택할 확률이 네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간제, 전일제 근로 형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근로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은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취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결혼 이후 출산, 양육, 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당장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시간제 근로의 형태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통계청, 2017). 다시 말해, 시간제 근로 여성들이 속한 일자리는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 환경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간제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시간제 근로의 교차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삶의 만족도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어 온 반면, 성별과 시간제 근로 간의 교차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0점에서 10점까지의 순서형 변수로 표현되는 삶의 만족도 전반을 다룰 뿐

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구간별로(1~3점, 4~6점, 7~10점) 구분하여 성별-시간제 근로의 교차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근로 형태와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일제 남성 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시간제 남성, 시간제 여성, 그리고 전일제 여성 모두가 삶의 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일제 근로자에게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 형태와 성별의 교차효과가 삶의 만족도의 구간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총 네 집단에 대하여 각각의 삶의 만족도 구간을 선택할 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해 1~3점을 선택한 집단과 4~6점을 선택한 집단은 서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7~10점을 선택한 집단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구간(1~3점)에서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높은 선택 확률을 가졌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구간(7~10점)에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선택 확률을 보여 시간제 근로가 특히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남성 전일제 근로자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구간(7~10점)에서 가장 높은 선택 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은 구간(1~3점)에서는 가장 낮은 선택 확률을 가져 전일제 근로는 특히 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선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제 및 전일제와 같은 근로 형태를 통제할 상태에서 성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남성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성별 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자의 다수는 여성이며 시간제 일자리는 열악한 지위와 편중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의 학력 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기준 여성 시간제 근로를 주도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와 판매 및 서비스종사자로 나타났다(정성미, 2010). 또한 각 직종별 비정규직 내에서 시간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숙련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비자발적 취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은 높아진 학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종사하게 되고,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종사자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해외 연구들은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직장인의 경우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Gash, 2010).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열악한 고용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내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상,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선 일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공급을 통해 고학력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가영희, 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pp.163-186.
- 고용노동부, 2018,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 방안: 한국형 모델개발, 재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강식, 2014,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질서경제저널』, 17, pp.41-66.
- 김난주·권태희, 2009, 기혼여성의 직장·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76(1), pp.43-70.
- 김현경·강신욱·장지연·이세미·오혜인, 2015,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호, 2014, 시간제근로자의 중요성과 노동시장 현황, 『노동리뷰』, 109, pp.29-49.
- 박은희·김혜숙, 2017, 근로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pp.581-589.
- 성재민, 2014,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함의, 『노동리뷰』, 111, pp.20-33.
- 이주희, 2011,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72, pp.21-26.
- 이준협, 2013,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한국경제주평』, 546, pp.1-21.
- 정성미, 2010,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현황 및 특징』,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14, 『2013년 유연근로제 활용 현황』,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대전: 통계청.
- 홍찬숙, 2011, 시간제 고용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적합한 방법인가?, 『경제와사회』, 90, pp.363-386.
- OECD, 2017, 『2017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7)』, Paris, France: OECD.
- OECD, 2018, 『2018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7)』, Paris, France: OECD.
- Boye, K., 2009. Relatively different? How do gender

- differences in well-being depend on paid and unpaid work in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 pp.509-525.
- Campbell, A., Converse, P. E., and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NY: Russel Sage Foundation.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and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pp.71-75.
- Gash, V., Mertens, A., and Gordo, L. R., 2010. Women between Part-Time and Full-Time Work: The Influence of Changing Hours of Work on Happiness and Life-Satisfaction, 『SOEP papers on Multidisciplinary Panel Data Research』, 268, Berlin, Germany: SOEP.
- Kenjoh, E., 2005, New mothers'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in the UK,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and Japan, 『Labour』, 19, pp.5-49.
- McCullagh, P., 1980, Regression models for ordinal data,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 Series B (Methodological)』, 42(2), pp.109-142.
- Palmore, E., and Kivett, V., 1977,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32, pp.311-316.
- Rife, J., 2001, Mental health benefits of part-time employment: A case study, 『Clinical Gerontologist: Journal of Aging and Mental Health』, 24, pp.186-188.
- Rodríguez-Pose, andrés, and Viola Von Berlepsch, 2014,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happiness in Eur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 pp.357-386.
- Sparreboom, T., 2014, Gender equality, part-time work and segreg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3, pp.245-268.
- 계재신청 2019.06.19.
심사일자 2019.06.25.
계재확정 2019.06.26.
주저자: 김재원, 교신저자: 임 업